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 중 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소신지서 강해
-미가서-

하나님 같으신 이 없도다 II

(미가 7장 14 - 20절)

심판주로서, 또 구원주로서 뛰어나신 하나님은 목자처럼 자기 백성을 돌보시는데도 뛰어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자신과 목자를 동일시 하셨습니다. 목자는 양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1.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미가 선지자는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 번 말한바 있습니다(2:12, 4:6-8, 5:4, 7:14). 목자가 다스릴 때 양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지도와 인도를 받을 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다윗은 자신을 하나님의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하며 그가 우리를 철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사막이라서 설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목자로 삼는 사람에게 설 곳이 많습니다.

양은 잘 늙지 않는 짐승으로 두려움과 긴장과 공격과 배고픔의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늙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켜주시며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당신의 양으로 하여금 쉬게 하십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을 양 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 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12절).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어 백성들로 하여금 쉬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미가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시 23:3).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쟁까지도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이기게도 하시고 지게도 하시는 분입니다(대하 20:15).

양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쉽게 길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목자가 잘 인도하지 않으면 황량한 벌판 가운데 버려졌다가 병들어 신음하다가 죽어버립니다. 그런가 하면 목자가 인도하면 그 곳을 떠나지 않아서 인도한 그 곳에서 풀의 뿌리까지 뜯어먹어서 주변을 황량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방향 제시를 잘하고 정말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짐승이 바로 양인 것입니다.

성도는 매우 똑똑한 것 같으나 실상은 모두가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도우심과 그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갈 바를 알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사마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시 23:4). 양은 목자가 있는 한 안전합니다. 양은 겨울에 낮은 골짜기에서 거하며 여름이 되면 높은 등성 초장이 있는 곳으로 옵니다. 골짜기는 위험해서 사나운 짐승의 공격을 받을 수 있고 악천후로 인하여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는 위험한 골짜기에 있는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합니다. 또 목자는 양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양들이 초장으로 오기 전에 먼저 가서 모든 독초를 제거하고 사나운 짐승들을 쫓아내며 그 곳을 안전지대로 만듭니다. 목자는 이렇게 양들에게 안전을 주고 기쁨과 평화를 줍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시 23:5).

기름과 술은 기쁨과 번영을 상징합니다. 기름과 술은 마른 땅에 거주하는 이들에게 매우 귀한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은 일년 내내 햇볕이 쨍쨍 내려 쪼이는 사막지대입니다. 이런 곳에 살면 피부는 갈라지고 목은 사막의 먼지로 가득 차서 갈라지게 됩니다. 기름은



이중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터진 피부에 바르고 술은 목을 축이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손님이 오면 기름과 술을 내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 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시 104:15). 주님은 자기의 백성에게 기름과 포도주를 풍성히 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얼굴은 빛나고 마음은 즐거움으로 가득 찼습니다.

뿐만 아니라 목자는 천국까지 준비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시 23:6). 이것은 매우 위대한 약속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전에서 밤낮으로 그를 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을 바라보면서 노래했습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는 “다시는 누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계 7:16-17)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목자장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처럼 저들을 이끌어주시고 보호해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2. 용서하시는 하나님

인간은 무한하지 못해서 반드시 한계상황에 부딪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으로 우리를 끝없이 용서하십니다. 심판과 구원과 인도하심을 말하던 미가 선지자는 또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17-18절).

미가 선지자는 죄인 된 인생임을 먼저 자인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사람을 계속적으로 용서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백하는 사람의 죄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무한히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해도 우리가 계속 죄를 짓는다면 나중에는 죄에서 헤어 나올 수 없게 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시므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요일 1:9).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씌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요일 2:1).

죄를 범하고 회개한 후에는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일 계속 죄를 범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버린 자식이 됩니다.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큰 진리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같은 은혜를 체험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힘입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웃사랑 교회사랑

열린 바자에 내 몸을 드립시다

9월3일(수) - 5일(금) 3일간

서울교회는 이웃사랑의 섬김을 주장한다. 그 실천에 앞장서 열린바자가 기도하고 9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교회 안팎과 한티공원에서 열린다.

이번 바자는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성도가 바자에 동참하여 이웃사랑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의 작은 정성이 모아져서 태산이 되면 독거노인들의 마음에 그리스도가 깊이 심어질 것이고 소년소녀 가장들과 탈북자에게도 생명의 교통하심이 있을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응답하는 것뿐이다. 그러므로 이 작은 봉사가 우리의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될 수 있음을 현장 체험해보자는 것이다. 열린 바자의 목표는 귀한 것, 중요한 것, 필요한 것, 꼭 사야 할 제품들을 준비하는 것이고 영양가 높은 음식과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이다. 열린 바자를 위해 준비하는 분들의 맘과 수고에 미리 감사드리며 열심히 봉사해주시리라 확신한다. 열린 바자는 성도들의 수고이고 이웃사랑의 잔치가 될 것이다. (4면 참조)

(바자수칙)	(바자개장시간)
1. 이웃 사랑은 전교인 참여에 있다.	9월3일(수): 12:30 ~ 18:00
1. 아무리 급해도 바자때까지 기다린다.	9월4일(목): 10:00 ~ 19:00
1. 내가 동참하면 목표 달성된다.	9월5일(금): 10:00 ~ 18:00
1. 기쁨으로 사고팔면 이웃사랑이고 교회사랑이다.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 개강 준비 시작하다

집행위원 및 봉사자 선정

교회는 오는 9월 8일(월) 개강하는 제24학기 목회자 신학세미나(원감 민순구 장로)의 개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지난 주 집행위원 및 봉사자를 선정하여 오늘 순례자 지면을 통해 발표하였다.

제24학기 목회자세미나 집행위원 및 봉사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 | |
|---------------|---------------|
| 원장: 이종윤 목사 | 원감: 민순구 장로 |
| 교학과장: 정동호 집사 | |
| 서기(남): 차도훈 집사 | 서기(여): 한명순 집사 |
| 회계: 인대진 집사 | 관리: 최광성 집사 |

식사: 권사회 전임 (봉사자)

- 윤찬오 이복규 한길동 신윤식 이계홍 이양철 김규태
 탁경준 유율상 정동학 양춘경 유관모 오승민 김진달
 김정호 이상태 김수호 임송자 나금주 노인숙 윤숙희
 박중숙 서중숙 박현영 윤용미 이미송 박순복 이은자
 김현정 채경희 최종희 박민숙 정수진 이현주 송민자
 나연신 박한옥 송희숙 오은숙 김남옥 김유경 김명숙
 박분옥 조신임 박재숙 함은희 김인숙 임인선 김희정
 여동옥 최문주

찬양대 양성반 개강

9월7일(주) 오후 1시30분, 601호실에서

찬양대 양성반 후반기 과정이 다음 주일 1시30분 601호실에서 열린다. 7주간의 커리큘럼으로 조정되어 개강하는 후반기과정은 다음과 같다.

찬양대원으로 봉사하기 원하는 성도는 반드시 신청하여 수강하기 바란다. 강의는 박정선 집사가 계속하여 맡는다.

금주의 성구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행 2:44-47)

All the believers were together and had everything

in common. Selling their possessions and goods, they gave to anyone as he had need. Every day they continued to meet together in the temple courts. They broke bread in their homes and ate together with glad and sincere hearts, praising God and enjoying the favor of all the people. And the Lord added to their number daily those who were being saved.

(NIV ACTS)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단원 모집

주일 2부 예배 후 504호실로

주일 2부 예배시간에 핸드벨 연주로 예배를 더욱 아름답고 은혜롭게 드리고 있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에서 하반기 신입단원을 모집한다.

대학 청년부 연령의 음악적 소양을 갖춘이면 누구나 가능하며 소정의 교육을 받은 후 정식단원으로 연주에 참여하게 된다. 입단을 원하는 성도는 주일 2부 예배 후 504호 핸드벨 연습실로 문의하면 된다.

초등부 알뜰 의류판매코너 개장

오는 9월3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열린바자에 초등부(부장 오정수 장로)도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이웃 사랑하는 마음과 물질을 아끼고 나눠 쓰는 좋은 습관을 가르치도록 하기로 하였다.

알뜰의류판매코너는 집에서 입지 않는 아이들의 옷가지와 용품 등을 모아서 판매할 예정이다.

다락방 다시 모인다

9월19일(금)에

8월 한 달간 휴가철과 무더위로 다락방 모임을 잠시 쉬었던 우리교회는 9월 첫 주는 바자, 둘째 주는 추석연휴관계로 오는 9월19일(금)에 다시 모이기로 하였다.

열린 프로그램 접수 중

9월 첫주부터 개강되는 2003년 하반기 열린 프로그램 접수가 지난주부터 시작되었다.

서울 성경대학교와 주부 대학, 살롬 경로대학으로 구성되는 열린 프로그램에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여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기관별 식당 봉사자

- 8. 31(주) - 에스더여전도회
- 9. 7(주) - 한나여전도회
- 9. 14(주) - 당회원
- 9. 24(주) - 스테반 회
- 9. 28(주) - 권사회
- 10. 5(주) - 빌립남선교회
- 10. 12(주) - 안드레 남선교회
- 10. 19(주) - 베드로 남선교회
- 10. 26(주) - 바울 남선교회

장로가정탐방

사명을 생명으로...

김광신 장로 이인선 권사가정(12교구)

누구나 저마다 자기의 색깔이 있고 자기의 노래가 있고 자기의 꿈이 있다. 자기에게 주어진 달란트를 극대화 하면서 아직도 맑은 혼으로 청년의 꿈을 꾸는 하나님의 큰 일꾼이 있다. 언제나 조용하지만 창조적이고 꿈을 실현하려고 꿈틀거리는 김광신 장로님!

회갑을 훨씬 넘기신 63세이지만 청년의 기백으로 교회와 민족을 끌어안고 하늘나라 이상에 도전하려는 열정적인 장로님이시다.

소유보다도 존재의 넉넉함으로 행복해 하시며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의 고난 한복판에서도 예수이름을 외치는 꼴수 예수쟁이시다.

1941년 경북 봉화에서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초등학교 때 큰아버지의 양아들로 서울에 상경했다. 어린 나이에 부모를 떠나 그때부터 모진 삶의 고통이 시작되었다.

돌이켜보면 장로님께 하나님의 계획된 특별한 훈련이 시작되었고 부모형제를 떠나 요셉처럼 고독하게 지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찾아 오셨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이 시작되었고 그 생활이 내생의 전부였으며 말보다는 글로 하나님을 만났다.

매일 새벽기도나 주일예배는 물론이고 수요일 금요일까지 억척같이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셨다고 한다. 그 신앙이 대학에 가서 C.C.C.활동으로 이어져 삶의 방향이 구체적으로 전환되기 시작했고 영적인 눈이 떠져 넓은 세상을 포용하는 신앙세계를 구축했으며 소극적인 성격이 적

극적인 성격으로 진취적인 사람으로 변해가며, 그래서 지금의 장로님으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지혜롭게 만드셨노라고 감격하셨다.

고 2때부터 학습 세례로 시작해서 결혼식까지 30년을 함께하신 교회에서 1982년에 장로 장립을 하셨다. 대학 4학년 때 이종운 목사님께서 청년부 전도사로 오시면서 적지 않은 영향을 받았다고 회고 하셨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 인생이 달라지듯 장로님께서는 이인선 권사님을 만나고 백 번째 되는 날 약혼식을 하셨고 결혼 후 권사님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행복과 온 세상을 사랑으로 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요 축복이고 내 인생의 큰 선물이며 신앙의 큰 동역자라고 지금도 행복에 겨워 사랑에 빠져 계신 것 같아 흐뭇해 보였다.

자녀는 1남 1녀를 두시고 모두 결혼 정년기를 앞두고 있다. 교회에 대한 바램은 성장하는 교회 위에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훈련된 실력 있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청소년을 향해서는 젊었을 때 그들을 품고 바로 세위 장차 이 나라와 하늘나라를 책임지고 갈 사람들이 되도록 무엇인가를 던져보고 싶다고 강한 비전을 제시하셨다. 앞으로 우리교회가 해마다 1000명씩 늘어나 3년 후에는 명실공히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교회가 될 것이라고 70인 전도대장답게 말씀하셨다.

올해 장로님께서는 기획위원장으로 캄보디아 단기선교 단장으로 당회 서기로 장년부와 찬양대 성경공부교사로

열린바자 위원장으로 무척 바쁜 날들을 보내고 있다. 2003년 성령의 새바람이 불것을 기대해 본다.

언제나 죽도록 충성하시는 장로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고마워" 405장 찬송가를 제일 좋아 하신다며 그 죄인이 사명을 생명으로 알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작은 종으로 값지게 보내고 싶다고 말씀하신 장로님의 여생이 더욱 아름답게 하늘나라에 상달되시기를 기도드린다.

신동기(편집부)



반갑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박인규 집사, 강미령 집사가정(1교구)

교회에 열심히 다녔지만 귀국한 후 딱히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있던 가운데 축호전도를 하던 70인 전도대의 심명숙 집사님의 방문을 받고 심 집사님 권면으로 서울교회에 등록하게 되었다.

박인규 강미령 집사는 대학부 정연, 고등부 윤선, 초등부 성현, 이렇게 1남 2녀의 자녀를 두고 있다. 박 집사님 가정은 그간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지만 귀국하고 나니 갑자기 바뀐 환경과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마음이 부산하였고 더구나 박 집사님의 직장이 대전이라 신앙생활을 전처럼 적극적으로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서울교회에 등록한 후 이종운 목사님의 말씀 중심의 설교와 새가족부 교사들의 사랑과 섬김을 힘입어 신앙적인 면에서 이제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현재 박 집사님은 반도체 장비를 개발하고 반도체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주)지니텍을 경영하고 있다. 대전 대덕 단지에 위치한 (주)지니텍은 미국과 일본이 장악하고 있는 반도체의 첨단기술력을 국내기술로 대체하기 위해 부단히 연구 개발하고 우수한 외국의 반도체 업체들과 경쟁하여 결코 뒤지지 않는 미래기업으로서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박 집사님은 자신의 회사를 소개한다.

(주)지니텍은 '원자층 증착 기술' 등 고유의 32가지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한국의 반도체 산업 태반이 외국 기술을 수입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연말전 다국적기업인 ASM에 반도체 기술을 역수출하며 세계 반도체 산업에 성공적인 진입을 했다고 한다.

박인규, 강미령 집사님은 열심히 봉사하는 서울교회 성도들을 보며 8주간의 새가족부 교육이 끝나면 자신들도 무언가 해야 되지 않을까를 생각하고 있는데 특히 강 집사님은 자신의 은사가 무엇 일까를 신중하게 돌아보고 있다고 한다.

신앙이란 외형적인 모습이나 형식보다는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겠느냐고 하는 박집사님은 자신도 전에는 실력과 능력으로 회사를 키운다고 생각했지만 모든 일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이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게 된다고 한다. 그래서 박인규 집사님과 강미령 집사님은 (주)지니텍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업으로서 명실공히 세계반도체산업의 한복판에 우뚝 자리매김 하고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성실히 자라줄 것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허숙(편집부)



10년 동안 주합상사 주재원으로서 미국과 베트남에서 거주한 후 3년 전 귀국하여 대치동 청실아파트에 사는 박인규, 강미령 집사님은 8월 첫 주에 서울교회에 등록하여 3주째 새가족부 교육을 받고 있다.

박집사님 가정은 이미 주재원 시절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웃사랑 · 교회사랑

2003년 열린 바자



교구별 판매 물품현황

<p>1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호박죽 · 현물판매: 의류, 액세서리 	<p>2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빵튀기 · 현물판매: 키친타올, 미역, 하남쇼팽의류 	<p>3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빈대떡 · 현물판매: 추리닝(상, 하), 양말 	<p>4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판매: 꿀, 고춧가루, 참기름, 참깨, 깨소금, 된장, 조선간장, 소세지(염) 	<p>5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물판매: 청매실, 고추장, 간장, 구두(바이네르), 숙녀복(앙스모드) 
<p>6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애플전 현물판매: 집화류(가방), 각종 액세서리, 배 	<p>7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판매: 올림도 취니들, 신발, 선물용품(중국산), 돌보기, 골프연습가방 	<p>8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대추생강차 현물판매: 여주밤, 고구마, 양털시트 	<p>9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식혜 현물판매: 불고기, 돈까스, 들깨가루 	<p>10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물판매: 밑반찬, 고춧가루, 건어물(멸치), 여성의류, 주방기구, 웰린도 지갑 
<p>11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커피 	<p>12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도토리묵 현물판매: 김치, 포도, 고춧가루, 미숫가루, 	<p>13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전옥수수 현물판매: 핸드백, 화장품, 운동화, 의류 	<p>14교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먹거리: 순대, 떡볶이, 오징 현물판매: 호박, 구두, 풍심추출기, 자전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에바디부: 호떡 · 초등부: 알뜰의류코너 · 특판부: 그림 등 <p>(식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교구: 사골곰탕 · 11교구: 삼계탕 · 13교구: 비빔밥

동정

- 이중윤 목사는 9월2일 기독교 학술원 학술상 심사위원회를 소집한다. 3일 총회총대(강남노회)준비모임 참석, 4일 대치동교회 연합회 모임을 소집한다.
- 개업: 정동학 집사(8교구), SEDEN(자동차의형복원) 송파구 가락동 대림아파트 5단지 앞. 김재신 손여민 성도(3교구), 유유클래식, 586-2722
- 특납: 송명화 성도(7교구)
- 두냐: 신대철, 김성은 성도(3교구)(김영주 집사 이해순 권사 의손녀)
- 학위취득: 김은정 집사(3교구) 연세대에서 독문학 박사학위 취득, 김수경 성도(9교구) 한양대에서 건축경영학과 박사학위 취득
- 금주의 식사: 한종표 집사, 박명희 집사가정 (범사에 감사하며)

이중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 기독교방송(HLKY 106.9M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 인터넷방송 (· C3 TV - <http://c3tv.co.kr> · 호산나넷 - <http://hosanna.tv>)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 사랑 이웃사랑 열린 바자(9월 3일 ~ 5일)를 위하여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들을 위하여
3. 목회자 신학세미나, 경도대학, 주부대학, 성경대학 등 열린프로그램을 위하여
4. 나라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30분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약도 :

